



제 11회 종교개혁기념 학술세미나

16-17세기 개혁교회와 오늘 한국교회

일시: 2016. 10. 31. 월요일 오후2시
장소: 고신대학교 한상동기념홀(은혜관1층 1002호)

1부: 예배 14:00-14:30 사회: 이신열 개혁주의학술원장

찬송-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통384)

①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 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라 ②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 밖에 없도다/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당할 자 누구랴 만드시 이기리로다 ③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기도- 현광철 목사(부산동교회담임)

설교- 장희종 목사(대구명덕교회담임)

“당신의 말이 진리로 인정되기 위하여” (왕상 17:1, 24)

1.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24.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축도- 최정철 목사(모든민족교회담임, 개혁주의학술원후원이사장)

축사- 조성국 교수(고신대교목실장, 기독교교육학과교수)

14:30-14:40 휴식 및 포토타임

2부: 종교개혁기념 학술세미나 사회: 이신열 개혁주의학술원장

강의1 14:40-15:20 “16,17세기 개혁신학의 교회관: 참 교회와 순수 교회”
김병훈 박사(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강의2 15:20-16:00 “가시적 성도(Visible Saints)와 교회언약 (Church Covenant): 회중교회의 두 기둥 - 존 오웬을 중심으로”
이성호 박사(고려신학대학원, 역사신학 교수)

3부: 논평 및 질의토론 사회: 이신열 개혁주의학술원장

논평 16:00-16:10 우병훈 박사(고신대 신학과)
황대우 박사(진주북부교회)

질의토론 16:10-16:30 청중 및 사회자

16,17세기 개혁교회 교회관: 참 교회와 순수 교회

김병훈 박사(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종교개혁자들이 답해야 했던 신학적 과제들은 크게 두 가지 영역에 관련된 것이었다. 하나는 구원론이다. 즉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의롭다 함을 받는 길”에 관한 논쟁이다. 다른 하나는 교회론이다. 만일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분리하여 나온다면 과연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는 참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교회란 무엇이며, 참 교회의 표지란 무엇인가”에 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¹⁾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을 향하여 교회에서 이탈한 자들이라는 비판을 하였다. 서방 세계에서 16세기에 이르는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유일한 보편교회의 지위를 누리온 까닭에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의 이러한 비판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에 대하여 자신들이 교회에서 분리된 자들이거나 교회의 단일성을 해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답하면서 도리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보편적 교회가 아님을 반박을 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론을 발전시켰다. 그러한 교회론은 신앙 표준문서들에 반영이 되어 루터파 교회와 개혁파 교회가 각각 어떻게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구별이 되며, 또한 종교개혁을 통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분리가 교회의 단일성을 해치기어녕 오히려 참 교회를 회복하는 것임을 교훈하였다.

만일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구분된 종교개혁의 교회가 참 교회라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규명하고 정립하지 못했다면, 종교개혁은 현재까지 아는 바와 같은 모습으로 역사 속에서 계속되지 못했을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이나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이나 모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Nulla salus extra ecclesiam)는 데에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구원론은 반드시 교회론의 확립을 통해서만 정당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적어도 종교개혁의 교회가 참 교회로 인정이 되는 표지(notae ecclesiae)를 참으로 가지고 있으며, 결코 참 교회로부터 분리하는 죄악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변증이 절실했다. 이를 위한 종교개혁자들의 노력은 첫째로 교회의 정의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지를 밝히고, 둘째로 참 교회의 표지를 구별하고, 셋째로 참 교회의 표지를 잘 갖추고 있는 순수 교회를 설명하고, 마침내 넷째로 그러한 기준에 비추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에 대한 평가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이러한 내용들을 16,17세기 개혁교회의 신앙 표준문서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 결과에 따를 때, 과연 16,17세기 개혁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참 교회로 인정을 했는지, 아니면 거짓 교회로 비판을 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것은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참 교회이지만 순수하지 못한 교회인지, 아니면 거짓교회일 뿐인지를 살피는 일을 과제로 한다.

1) 종교개혁자들의 이러한 신학적 도전들을 에이비스(Paul D. L. Avis)는 “어떻게 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와 “어디에서 참 교회를 찾을 수 있는가?”의 질문으로 요약한다. Paul D. L. Avis, “‘the True Church’ in Reformation Theology,” in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vol. 30 (1977), 319; idem, 『종교개혁자들의 교회관』, 이기문 역, *The Church in the Theology of the Reformers* (서울: 콘콜디아사, 1987), 9.

1. 교회란 무엇인가? -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16,17세기 개혁교회의 주요한 신앙 표준문서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교회를 정의하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의 개념을 담고 있다.²⁾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를 외형적으로 구체화된 가시적 제도로 이해하였으며, 교황을 머리로 하는 단일한 기관만이 바로 참 교회라고 주장하였다.³⁾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제도적인 관점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실재(a reality)를 바르게 보여주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이해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조정해주는 것이었다.⁴⁾ 이러한 자신들의 견해를 반영하기 위하여 거의 모든 개혁교회의 주요한 신앙 표준문서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고백을 명시적으로 또는 의미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파와 개혁파가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를 구별한 것은⁵⁾ 단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에 반대하여 교회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 곧 믿음,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와 그의 은택들과의 교통에 있는 것이지, 결코 교회가 보이는 실재(a reality)라는 것을 손상시키는 데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⁶⁾

몇 가지 중요한 중요 문서들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쾰링겐(Huldrych Zwingli)는 카를 5세(Karl V)에게 보낸 『신앙설명서』(*Fidei Ratio*, 1530)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에 관하여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된 선택

- 2) 이러한 사실은 네 권으로 발간 된 James T. Dennison Jr. ed., *Reformed Confessions of the 16th and 17th Centuries in English Translation* (Grand Rapids, MI: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08-2014)에 수록된 127개의 신앙문서들 가운데 교회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는 모든 문서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한다. 이 책은 이하 RCET로 줄여 쓴다.
- 3) 2세기 초대교회 시대에 등장한 이단 분파들을 비판하면서, 교회는 ‘참된 교회’를 정의하는 가운데 ‘가톨릭’이라 불리는 교회의 보편성을 점차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외적인 기관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마침내 사도적 계승과 전통을 소유한 주교의 계급구조가 참된 교회의 기준이 되었다. 참고,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4, translated by John Vriend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8), 281-286.
- 4) G.C. Berkouwer, *The Church*, trans. by James E. Davison (Grand Rapids, MI: Eerdmans, 1976), 37. 제베르크(Reinhold Seeberg)는 교회론과 관련하여 종교개혁자들 전개한 신학 비판을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한다. 하나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성례 이외에 교회에 필요한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침례파를 향한 것으로, 말씀과 성례가 없이는 교회가 없다는 것이다. *Text-Book of the History of Doctrines* vol. II, trans. by Charles E. Hay (Eugene, Pasadena: Wipf & Stock, 1997), 292.
- 5)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의 구별은 루터파와 개혁파 사이에 공통적으로 주장되는 바이었다. 그러한 구별은 어거스틴에게 신학적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주요한 종교개혁 신학자들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비록 멜랑히톤(Philip Melancthon)은 그가 작성한 아우그스부르크 신앙 고백서(the Augsburg Confession, 1530)의 7항과 8항,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 변증서(the Augsburg Apology, 1531)에서 ‘보이지 않는’ 또는 ‘보이는’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교회에 대한 그의 진술은 다른 종교개혁자들이 구별한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의 개념과 일치한다. Emidio Campi, “Theological Profile,” in *A Companion to the Swiss Reformation*, Amy Nelson Burnett and Emidio Campi, eds., (Leiden: Boston: Brill, 2016), 461.
- 6)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4, p. 288.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를 구별함에 있어서 루터파는 교회를 ‘성도들의 교통’이라는 주관적 측면을 말하면서도 직분과 말씀과 성례라는 객관적 측면에 있음을 자주 강조하였으며 그것으로 교회의 통일성과 거룩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멜랑히톤의 『신학총람』(*Loci Communes*)에서 보듯이 루터파는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coetus vocatorum)이라는 보이는 모임 밖에서는 선택받은 자들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하였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의 선택과 연결을 시키는 개혁파는 비록 교회가 말씀과 성례를 통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기관으로서의 교회의 바깥에 선택을 받은 자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Herman Bavinck, 288-289.

받은 자라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이에 관하여 바울이 교회를 가리켜 흠도 점도 없다고 말할 때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 교회는 달리 또한 보편적인 의미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띤 모든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아래 적을 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성례에 참여하지만, 그 중에는 아직 마음으로는 그리스도를 싫어하거나 그를 잘 알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입니다.⁷⁾

쯔빙글리는 여기서 교회를 하나님만이 아시는 택함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 교회와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로 구별한다. 쯔빙글리의 구별은 가장 초기의 개혁교회의 신앙문서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이다. 쯔빙글리는 카를 5세에게 앞서 보낸 신앙설명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 년 뒤에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에게 앞선 신앙설명서보다 자세하게 된 신앙설명서를 보낸다. 이것이 쯔빙글리의 마지막 글이다. 여기서 쯔빙글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교회가 존재한다는 것과 이 보편교회는 보이는 교회이거나 또는 보이지 않는 교회임”을 믿는다고 말함으로써,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이라는 표현과 ‘보이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⁸⁾

한편 이것과 같은 시기에, 부셔에 의하여 주도된 『4개 도시 신앙고백서』(*the Tetrapolitan Confession*, 1530)는 ‘보이지 않는’이라는 표현과 ‘보이는’이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라지가 섞인 교회와 온전한 의미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받은 자들만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구별함으로써 사실상 동일한 개념적 구별을 담고 있다.⁹⁾ 제1스위스 신앙고백서(*the First Helvetic Confession*, 1536)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의 명시적 구별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비록 그리스도의 교회의 회중은 하나님만이 보시고 아시지만”이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만 아시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인정하고 있다.¹⁰⁾ 하나님만이 보시고 아시는 교회는 사람에게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이며, 외적인 의식에 의해 식별이 되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제1스위스 신앙고백서를 작성하는데 주요한 기여를 한 불링거(Heinrich Bullinger)가 작성한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the Second Helvetic Confession*, 1566)도 또한 17장 ‘하나님의 보편적이며 거룩한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의 유일하신 머리에 대하여’에서 교회를 ‘승리한 교회’와 ‘전투하는 교회’로 구별하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의 구별을 말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지만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다고 불릴 수 있다.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눈에는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에게만 알려져 있어,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파악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다.¹¹⁾ 이것은 불링거도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의 구별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칼빈은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의 구별을 뚜렷이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¹²⁾ 이러한 칼빈의 이해는 『기독교 강요』의 최종판인 1559년판에서 성경이

7) *RCET* vol 1, “Zwingli, Fidei Ratio(1530),” 121. 번역은 김영재편, 『기독교 신앙고백』(수원: 영음사, 2011), 393-394에서 인용함.

8) *RCET* vol 1, “Zwingli, Fidei Ratio(1531),” 197.

9) *RCET* vol 1, “The Tetrapolitan Confession (1530),” 156-157.

10) *RCET* vol 1, “The First Helvetic Confession (1536),” 346. 번역은 김영재편, 『기독교 신앙고백』, 418.

11) *RCET* vol 1, “The Second Helvetic Confession (1566),” 844-850. 번역은 김영재편, 『기독교 신앙고백』, 553-560.

12) 칼빈은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의 구별과 관련하여 어거스틴과 부셔에게서 도움을 받은 것으로 방델은 평가한다. François Wendel, *Calvin: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교회에 대하여 말할 때 두 가지 방식을 따른다고 제시함으로써 명료하게 드러난다.

성경이 교회에 대하여 말할 때, 어떤 경우에 그것은 참된 실재로(*re vera*) 하나님 앞에(*coram Deo*)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 교회에는 양자로 삼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과 성령의 성화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가 된 자들 외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경우 교회는 이 땅에 거주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했던 모든 택함을 받은 자들을 포함한다. 그런데 또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흩어져 있으면서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종종 가리키기도 한다. 이러한 자들은 세례를 받고 믿음을 시작하게 된 자들이며, 주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참된 가르침과 사랑으로 인한 하나됨을 증언하고, 일치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설교하도록 제정하신 직무를 지킨다. 이러한 교회 안에는 이름과 외적인 모양이외에는 그리스도의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외식자들이 많이 섞여 있다. ...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눈에만 확실한(*solius Dei oculis conspicuam*), 보이지 않는 교회(*invisibilem eccelsiam*)를 믿어야 할뿐더러, 또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교회로 일컬어지는(*quae respectu hominum ecclesia dicitur*) 이러한 교회를 존중히 여기며(*observare*) 그것의 교통(*eius communionem*)을 돈독하게(*colere*) 하여야 한다.¹³⁾

이처럼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로 구별한 칼빈의 정의는 각각의 교회에 대하여 두 가지 사항을 주의하여 보아야 할 요구한다. 하나는 칼빈이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실제적으로(*re vera*) 하나님 앞에서 존재한다고 말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교회’가 결코 명목상으로(*nomine*)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칼빈은 베르카우어(G.C. Berkouwer)가 잘 언급하고 있듯이,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교회를 떠나서 가현적이며 지상에 없는 교회로 피신을 하려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¹⁴⁾ 칼빈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도리어 참된 의미에서 존재하는 것은 단지 사람들 보기에 교회로 인정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칼빈의 이러한 의도는 이미 멜랑히톤이 그의 아우그스부르크 변증서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함이 플라톤적 공화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며, 어느 곳에도 있지 않은 상상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밝힌 바와 그대로 일치한다.¹⁵⁾

다른 하나는 칼빈이 ‘보이는 교회’에 대한 존중이다. 그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교회로 일컬어지는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그 교회를 통한 성도의 교통(*communio sanctorum*)을 돈독하게 할 것을 강조한다. 교회를 떠나서는 죄의 용서나 구원을 결코 바랄 수가 없다고 칼빈이 말할 때, 칼빈이 염두에 두고 있는 교회는 다름 아닌 ‘보이는 교회’이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떠나서는 죄의 용서나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이 택함을 받은 자들은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 태어나고 양육을 받기 때문이다.

Religious Thought, trans. by Philip Mairet (London: Collins, 1963), 142-43.

13)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4.1.7. CO 2, 752-753.

14) G.C. Berkouwer, *The Church*, 37. 16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 변증 신학자인 벨라르미누스(Robertus Bellarminus)는 종교개혁자들의 ‘보이지 않는 교회’를 비판하면서, 교회는 보이는 것이며 또한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일뿐더러, 로마 시민들이나 갈리아 왕국이나 베니치아 공화국이 눈에 보이듯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Robertus Bellarminus, *Controversiarum de Conciliis*, III *Qui est de Ecclesia militante, Toto Orbe Terrarum Diffusa*, Caput II in *Opera Omnia Roberti Belermini politiani s.j./Roberto Francesco Romolo Bellarmino*, Tomo II “Ecclesia enim est coetus hominu ita visibilis, et palpabilis, ut est coetus populi Romani, vel Regnum Galliae, aut Respublica Venetorum.” cf. Edmund P. Clowney, *The Church*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5), 108.

자료출처: http://cdigital.dgb.uanl.mx/la/1080015572_C/1080015573_T2/1080015573_26.pdf

15) Philip Melanchthon, *The Apology of Augsburg Confession*, 7, 20.

이제 우리의 목적은 보이는 교회에 대해(*de visibili ecclesia*) 말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어머니라는 하나의 칭호를 통해서(*uno matris elogio*) 교회를 아는 것(*eius cognitio*)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며 필요한지를 알도록 하자. 왜냐하면 교회(*ipsa*)가 태에서 우리를 품고 낳으며 젖으로 먹이지 않으면, 요컨대 죽을 몸을 벗고 천사와 같이 될 때까지 우리를 교회의 보호와 다스림 아래 두지 않는다면, 생명으로 들어갈 다른 어떤 길이 없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는 일은 치명적이다.¹⁶⁾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거룩한 교회에 대해 가르치면서, 첫 장의 제목을 “신자들은 참 교회와 연합을 돈독히 하여야만 하며, 그 까닭은 교회가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¹⁷⁾라고 붙였다. 칼빈은 교회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말로 ‘어머니,’ 그 말보다 더 적절한 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칼빈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부부의 연합을 사람이 임의로 나누지 못하게 하신 말씀(막 10:9)을 제시하면서, 성도가 마땅히 교회와 연합되어 있어야 하는 이치를 강조하기까지 한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사람들에게 교회는 또한 어머니이어야 한다.”¹⁸⁾ 칼빈의 가르침은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신앙표준문서들에 그대로 전달이 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교회에 대한 25장 1항과 2항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한다.¹⁹⁾

보이지 않는 보편적인 교회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여 왔으며, 앞으로도 하나로 모일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다.(25장 1항)

보이는 교회 역시 복음 아래 있는 보편적인 교회로서 옛날 율법 아래에서처럼 한 민족에 국한 되지 않고, 참 종교를 믿고 고백하는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다. 보이는 보편적인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집이요, 가족이다. 통상적으로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25장 2항)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로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교회’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보이는 교회’를 구별한 칼빈의 견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이처럼 발견이 된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앞서 살펴 본 16세기 개혁신학의 아버지인 쾰링거와 불링거, 그리고 칼빈의 교훈을 계승하고 있음을 말해주며, 또한 이러한 두 가지 방식으로 교회를 구별하여 설명하는 일이 16, 17세기 개혁신학의 확고한 흐름이었음을 말해준다.²⁰⁾

16)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4.1.4. CO 2, 748-749.

17) “De vera ecclesia cum qua nobis colenda est unitas, quia piorum omnium mater est.”

18)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4.1.1. CO 2, 746: “quibus ipse est pater, ecclesia etiam mater sit.”

19) 번역은 김영재편, 『기독교 신앙고백』, 644-645.

20) 흥미롭게도 벨직 신앙고백서(1561)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그것에 따르면 교회란 하나의 보편적인 공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성령으로 성화되고 인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전적 구원을 바라는 참된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하나의 거룩한 회중이며 회합이다.”(27조 공동 교회에 관하여). 번역은 김영재편, 『기독교 신앙고백』, 474. 하지만 이러한 교회의 구성원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정의에 따른 회원의 범위와 동일하다. 이러한 영향에 따른 것인지, 2014년 네덜란드 개혁교회(회복파)(Gereformeerde Kerken in Nederland, hersteld)의 흐로닝엔(Groningen) 총회에 제출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에 대한 연구 보고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보이지 않는 교회’의 개념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며, 플라톤 철학과 유사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의 구별은 칼빈에게 있어서 중요한 교리가 아니었으며 별로 의미있는 역할을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구별은 오히려 칼 바르트에게서 볼 수 있다는 언급을 덧붙인 후에, 프랑스와 화란 개혁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다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모임으로서의 보편적 교회를

개혁파 신학자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의 구별을 말할 때, 그들은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음을 말한 것은 아니다.²¹⁾ 로마 가톨릭 교회 신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것은 두 개의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하였다. 예를 들어, 벨라르미누스는 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앙과 성사들의 교통으로 연합이 된 사람들의 모임이며, 합법적인 목사들의 다스림 아래, 특별히 그리스도의 유일한 대리자인 로마 교황의 영역 안에 있는 다스림 아래에 있는 교회이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두 개의 교회들을 말한다고 비판을 하였다.²²⁾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비판이 아니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교회를 구별하는 두 가지 측면은 반드시 구별이 되어야 하며 혼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 이것이 교회를 분리시키거나 두 종류의 다른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강조하였다.²³⁾ 예를 들어 칼빈은 1537년에 요리문답을 작성하였으나, 이것을 보다 더 어린이들에게 적합하도록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1542년에 다시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을 작성하였는데, 그곳에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²⁴⁾

교사: 교회란 무엇입니까?

학생: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신자들의 몸이며 모임(*corpus ac societas fidelium*)입니다.

교사: 이 교회를 믿음으로 믿는 것 외에 달리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학생: 하나님의 보이는 교회가 과연 존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정한 표지들과 표시들로(*certis indiciis notisque*) 지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비밀한 선택으로(*arcana sua electione*) 아들로 삼아 구원을 받도록 하신 회중들에 대해서(*de eorum congregatione*) 설명하며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끝까지 식별할 수 없으며, 또한 표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말한다. *Bijlage 21: Onderzoeksrapport Westminster Standards (meerderheidsrapport)*, “De Westminster belijdenisgeschriften getoetst aan de Schrift en de drie formulieren van eenheid,” 101-102. 영역을 위하여,

http://www.calltoreform.com/Library/MaterialfromDGKH/WSmajorreportofBBK_DGKH.html
이와는 별개로 존 머레이(John Murray)가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로 교회를 정의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제기한 글을 참조하려면 다음을 보라. 여기서 머레이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개념으로 인하여 교회가 존재의 실체(entity)가 없는 것으로 이해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를 표한다. 그러나 머레이의 우려는 개혁파의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확실한 실체라는 사실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The Church: Its Definition in Terms of ‘Visible’ and ‘Invisible’ Invalid,” in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vol. 1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6), 231-236.

21) G.C. Berkouwer, *The Church*, 37.

22) Robertus Bellarminus, *Controversiarum de Conciliis*, III *Qui est de Ecclesia militante, Toto Orbe Terrarum Diffusa*, Caput II in *Opera Omnia Roberti Belermini politiani s.j./Roberto Francesco Romolo Bellarmino*, Tomo II : “Nostra autem sententia est, Ecclesiam unam tantum esse, non duas, et illam unam et veram esse coetum hominum ejusdem Christianae fidei professione, et eorumdem Sacramentorum communionem colligatum, sub regimine legitimorum pastorum, ac praecipue unius Christi in terris Vicarii Romani Pontificis.”

자료출처:http://cdigital.dgb.uanl.mx/la/1080015572_C/1080015573_T2/1080015573_26.pdf

23) Emidio Campi, “Theological Profile,” 461.

24) *Catechismus Ecclesiae Genevaensis, hoc est, Formula erudiendi pueros in doctrina Christi* (Genevae: 1550), 35, 37-38.

칼빈은 먼저 교회를 정의하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가르친다. 그 교회는 보이는 것이 아니므로 믿음으로 믿어 아는 교회이다. 그런데 여기서 칼빈은 이어서 말하기를 ‘보이는 교회’가 또한 있으며, 그것은 교회의 표시와 표지들(*indiciis notisque*)로 식별이 된다고 가르친다. 이와 달리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러한 것으로 분별이 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임을 가르친다. 즉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와 다른 종류의 교회가 아니다. 칼빈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님의 선택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믿음으로 인식되는 교회와 그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특정한 표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사람의 눈으로 인식되는 교회가 있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믿음으로 믿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표지들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는 ‘보이지 않는 교회’이며, 후자는 ‘보이는 교회’인 것이다.

2. 보이는 교회의 인식: 참 교회의 표지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볼 수가 있으나, ‘보이는 교회’는 사람이 볼 수 있다고 할 때, 무엇으로 보는 그것이 ‘교회’인 줄로 알 수가 있는가?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포괄한다. 이에 대한 대답과 관련하여 칼빈은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이는 교회’로 인식할 수 있는 교회의 표지를 지정해 주셨다고 말한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아무도 교회를 볼 수가 없기 때문이며, 교회라고 주장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을 때, 어느 것이 참 교회인지를 알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보이는 교회’에 있어서 참 교회의 표지를 확인하는 것은 교회론에 있어서 지극히 본질적이며 중요한 문제이다. 특별히 참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이며, 그로부터 분리한 종교개혁 교회는 또한 참 교회인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한 것이므로 실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16, 17세기 개혁파 신앙고백서들 가운데 참 교회의 표지에 대한 고백을 담지 않고 있는 신앙고백서는 거의 없다. 예를 들어 1536년에 작성된 제1스위스 신앙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비록 그리스도의 교회와 회중은 하나님만이 밝히 보시고 아시지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고 제정하신 외적인 징표를 통하여 보이게 되고 인식될 뿐만 아니라, 모이게 되고 세워지는 것이다.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있게 된 기관이요, 질서이다. 교회에서 보편적이며 공개적 질서를 세우는 권징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런 것이 없이는 … 아무도 이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없다.²⁵⁾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작성된 제1스위스 신앙고백서는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로 밝히고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고 제정하신 외적인 징표”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지막 하나는 “보편적이며 공개적 질서를 세우는 권징”이다. 이러한 표지들이 없다면 아무도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게끔 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표지들에 의하여 구성된다고 밝히고 있다.

흥미롭게도 칼빈은 교회의 표지와 관련하여 그의 『기독교 강요』 1559년판에서 말씀과 성례, 두 가지를 교회의 표지로 제시한다.

25) RCET vol 1, “The First Helvetic Confession (1536),” 346. 번역은 김영재편, 『기독교 신앙고백』, 418.

여기에서 교회의 생생한 얼굴이 나타나 우리 눈에 떠오른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설교되고 듣는 일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을 따라서 성례들이 실행이 되는 것을 보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의심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illic aliquam esse Dei ecclesiam nullo modo ambigendum est) ... 그러나 무리 전체와 관련해서는 다르게 판단되어야 한다. 만일 그 무리가 말씀의 사역을 갖추고 존중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성례의 실행을 갖추고 존중하고 있다면, 전혀 의심의 여지없이(procul dubio) 교회로 간주되고 인정을 받아야 마땅하다.²⁶⁾

칼빈은 교회의 표지는 교회의 표지가 있는 곳이면 그것이 바로 교회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하는 보증과도 같은 것이었다. 칼빈은 흥미롭게도 권징을 교회의 표지로 제시하지 않는다.²⁷⁾

그런데 프랑스 신앙고백서는²⁸⁾ 1557년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따라 작성되었고, 1559년에 칼빈의 영향 아래 증보가 되었지만, 칼빈이 교회의 표지를 말씀과 성례, 두 가지를 제시한 것과 달리, 교회의 질서를 위한 권징을 포함하고 있다.²⁹⁾

27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된 교회라는 명칭이 남용되고 있으므로 어느 것이 참된 교회인지를 지혜롭게 구별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가르치는 순수한 신앙을 좇아 하나가 되어 사는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한다. ...

28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채비를 하지 않거나 성례를 본래의 의미대로 시행하지 않는 곳에는 도대체 교회가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이 신앙으로 확인한다. ...

29항. 참된 교회에 관해 말하자면, 우리는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다스려져야 한다고 믿는다. ...

프랑스 신앙고백서와 비슷한 시기에 작성이 된 제1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1560)와 벨직 신앙고백서(1561년)는 각각 뚜렷한 어조로 참 교회의 표지를 제시하며, 이것이 없이는 거짓교회임을 천명한다.

18항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와 교리에 대한 바른 판단에 대하여 ... 그러므로 참된 교회의 표지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인정하는 대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와 사도들이 기록한 그들이 선포하는 그대로 옳게 설교하는 것,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우리 마음에 인치시

26)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4.1.9. CO 2, 753-754.

27) 방델에 따르면, 칼빈은 교회의 표지를 성도의 삶의 질적 측면과 같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들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에 두고자 하였다. 그러한 까닭에 『기독교 강요』 1536년판에서 성도의 모범적인 생활을 표지 가운데 하나로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으나 그 후로는 포함하지 않았다. 칼빈에게 있어서 목회적 권징은 참 교회를 정의하는 표지라기 보다는 기관으로서의 참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권징은 교회의 본질(*esse*)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본질이 좋은(*bene esse*) 것에 관련한 것이다. François Wendel, *Calvin*, 297, 300ff; Paul D. L. Avis, "The True Church' in Reformation Theology," 328, 331.

28) 프랑스 신앙고백서는 처음에는 18조항이었던 것이 나중에 35조항으로 증보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40조항으로 확장이 되었다. 이것은 거의 칼빈의 영향에 의하여 만들어 진 것이었다. 다만 증보판을 칼빈이 홀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비레(Pierre Viret)와 베자(Theodore Beza) 등과 함께 만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RCET* vol 2, "The French Confession (1559)," 140-141.

29) *RCET* vol 2, "The French Confession (1559)," 149-150. 번역은 김영재편, 『기독교 신앙고백』, 433-434.

고 확인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하는 것, 끝으로 교회에 해가 되는 것은 억제하고 덕행은 장려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는 대로 권징을 올바르게 시행하는 것 등이다.···(제1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29항 참된 교회의 표지에 대하여

우리는 열심히 그리고 용의주도하게 어떤 것이 참된 교회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해야 한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계에 있는 모든 종파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 참된 교회를 인식하기 위한 표지는 다음과 같다. 교회에서 복음의 순수한 교리를 설교하고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순수하게 베풀어지고 있는지, 죄를 벌하기 위하여 교회 권징이 시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하자면, 모든 것들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그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인정되고 있는지 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지로서 우리는 참된 교회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아무도 이 교회에서 스스로 분립할 권리는 없다.··· (벨직 신앙고백서)

이처럼 참 교회를 분별하는 세 표지들에 관하여 16세기 개혁파 신앙고백서들이 분명하게 기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고백들은 참 교회의 표지들에 의하여 어느 교회가 참 교회인지를 분별하고, 그러한 표지들에 일치하지 않는 교회에서 분리하여 나와야 할 필요와 정당성을 교훈한다.

참 교회의 표지들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는 일은 17세기 초에 이르러서도 여전하였다. 예를 들어, 1616년에 작성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우리는 지상에 있는 모든 개 교회들이 아니라 오직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붙들고 있으면서, 거룩한 성경에 따라서, 성례를 시행하고, 동일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예배하는 교회만이 순수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것들이 지상에 있는 참되며 가시적인 교회를 식별하고 알 수 있는 참된 표지들이다.³⁰⁾

이처럼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참 교회를 알 수 있는 표지들을 제시하면서 그 표지들을 따라 순수하게 행하는 교회가 순수한 참 교회임을 말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6년)는 25장에서 교회에 대해 다루면서 참 교회의 표지라는 용어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보편적인 보이는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와 세상 끝 날까지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완전케 하려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과 함께 친히 계셔서 이 목적을 효과 있게 이루신다.(3항)³¹⁾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보이는 교회가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시행, 그리고 권징의 사역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는 앞에 인용한 바대로 3항에서 복음사역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곧 성례 등이 하나님께서 ‘보이는 교회’가 교회로 작용하도록 주신 것임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27장부터 29장에 걸쳐서 성례를 다루면서 바른 성례가 무엇인지를 말하며, 또 30장에서 권징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말씀과 성례 그리고 권징을 ‘참 교회의 표지’란 용어를 사용하며 제시하지 않는다.³²⁾

30) RCET vol 4, "Scottish Confession (1616)," 115.

31) RCET vol 4,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1646)," 264. 번역은 김영재편, 『기독교 신앙고백』, 64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된 때와 비슷한 시기인 1645년에 작성된 폴란드 개혁교회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러한 특징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³³⁾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개 교회들은) 참 교회인지 아니면 거짓 교회인지를 다음의 표지들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즉 구원하는 믿음의 동일한 고백, 하나님의 반론의 여지가 없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들의 순수한 집행,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찬 예배, 교회의 권징이다. 이러한 것들에 의하여 사람들이 제시하는 필요치 않은 다른 표지들은 제한과 판단을 받아야 한다.(14장 교회에 대하여, 5항)³⁴⁾

폴란드 개혁교회 신앙고백서는 참 교회와 거짓 교회의 구별을 말하며, 이것을 구별할 기준이 되는 참 교회의 표지들이라는 용어를 확실하게 사용한다.

3. 참 교회와 순수 교회

그런데 참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세 가지 표지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세 가지 표지들을 인정받으려면 그것들은 어떠한 해야 하는 것일까? 만일 세 가지 표지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불분명하다면 참 교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거짓 교회가 되는 것일까? 이 질문은 세 가지 표지들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참 교회와 거짓 교회의 구별을 명료하게 하기 보다는 모호하게 만들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칼빈은 참 교회의 지표들을 지극히 존중해야 할 것을 말하면서, 참 교회라 할지라도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한다. 그러나 그 오류가 치명적일 경우에는 더 이상 참 교회로 용납될 수 없음을 말한다.

용납될 수 있는 오류들이 있다. 그것들은 종교의 중요한 교리들을 손상하지 않고, 또 모든 성도가 동의하여야 하는 신조들이 훼손하지 않으며, 또 성례와 관련해서는 성례를 제정하신 분의 합법적 규례를 파괴하거나 손상시키지 않을 경우이다. 그러나 거짓이 종교의 요새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 필수적인 핵심 교리들을 전복시키고 성례의 유용성을 파괴해 버리자마자, 의심의 여지가 없이 교회의 죽음이 초래된다. 이는 마치 목이 찢리거나 생명이 필수적인 장기가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었을 때 사람이 생명이 파괴되는 것과 같다. ... 참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며 또 근거”(딤후 1:12)이라면, 거짓과 허위가 지배력을 차지해 버린 곳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다.³⁵⁾

칼빈이 볼 때, 도덕적 과실이나 병폐, 사소한 교리적 오류 등은 참 교회임을 부인하게 할 만한 것들은 아니다. 그러나 핵심 교리를 부정하고, 성례의 합법적 사용을 파괴하는 일은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것과 같아서 교회를 죽이고 만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거짓 교회가 되고 만다. 칼빈은 참 교회와 거짓 교회의 구별의 기준을 도덕성과 모범적인 신앙생활에 두지를 않는다. 그

3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해설하는 저자들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참 교회를 말하고, 참 교회의 세 가지 표지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이들이 있다. 예를 들어 윌리엄슨(G. I. Williamson)이 그러하다. 그는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언급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아니라 벨직 신앙고백서를 인용하여 그러한 설명을 풀어간다. G. I. Williamson,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for Study Classes*, 나용화 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0 초판, 2003 재판), 301을 볼 것.

33) 폴란드 왕 올라디슬라우(Vladislaus)이 폴란드 내에 있는 모든 기독교 교파들, 곧 로마 가톨릭, 루터파, 개혁파들에게 명령하여 일치를 이루도록 회담을 열었다. 이것이 이른바 ‘손 회담’(the Colloquy at Thorn)이었다. 폴란드 개혁교회 신앙고백서는 이 회담을 위하여 폴란드 개혁교회가 작성한 것이다. RCET vol 4, “The Colloquy of Thorn (1645),” 205-206.

34) RCET vol 4, “The Colloquy of Thorn (1645),” 228.

35)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4.2.1. CO 2, 767, 768.

는 교회의 참 표지를 항상 객관적인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성례의 합법적 시행에서 찾는다.

16세기 개혁파 신앙고백서들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간결하게 정리하였다. 다시 1560년의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와 1561년의 벨직 신앙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18항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와 교리에 대한 바른 판단에 대하여 사탄은 처음부터 그의 유해한 회당을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가장하느라고 노력했으며, 잔인한 살인자들을 부추겨서 참 교회와 그 지체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며, 훼방하게 하였다. 가인이 아벨에게,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에서가 야곱에게, 그리고 유대인의 온 제사장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그를 따르는 사도들에게 그렇게 하였다. 그러므로 참 교회와 불결한 회당의 특징들이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그리고 완전히 파악하여 우리가 기만당하거나, 회당을 용납함으로써 스스로 정죄를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양자를 서로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를 무서운 창녀로부터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특징과 표지, 그리고 확실한 증거는 오랜 연륜이나, 도둑맞은 칭호나, 대를 잇는 계승이나, 지정된 장소도 아니고, 한 가지 잘못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수도 아니다. 가인은 아벨과 셋보다 나이와 지위가 위였으며, 예루살렘은 지구상의 어느 다른 곳보다 입지가 우월하였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제사장들이 아론으로부터 승계하고 있었으며, 전통을 이어 오던 율법사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가르침을 믿고 순수하게 따른 사람들보다 수적으로 월등히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에는 먼저 거론된 이름들을 두고 그 어느 그룹이 하나님의 교회였다고 주장할 사람은 제대로 판단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1560)³⁶⁾

29항 참된 교회의 표지에 관하여

… 거짓된 교회를 논하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 자체와 교회의 규정들에 더 큰 힘과 권위를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에 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러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으로 제정하신 성례들을 집행하지 않고 그 성례들을 자의로 가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의존한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며 이런 교회의 과오와 탐욕과 우상숭배를 질책하는 사람들을 핍박한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는 쉽게 알 수 있고, 식별할 수 있다.(벨직 신앙고백서)³⁷⁾

1560년의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나 1561년의 벨직 신앙고백서는 거짓 교회는 참 교회의 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교회들로 요약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 자체의 규정을 더 높이고, 성례도 자의로 가감하고 집행하며, 교회의 오류를 지적하는 자들을 도리어 핍박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아니라 교회의 이름을 가장하고 있는 무서운 창녀이다. 구체적으로 아벨에 대하여 가인이, 이삭에 대하여 이스마엘이, 야곱에 대하여 에서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그를 따르는 사도들에게 대하여 유대인의 온 제사장들이 그러한 자들이며, 이러한 자들은 아무리 수가 많고 세력이 강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교훈한다. 그리고 거짓 교회를 식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교훈한다.

이러한 강조점은 1562년에 작성된 헝가리 개혁교회의 보편 신앙고백서(*The Hungarian Confessio Catholica*)에서도 잘 드러난다. 헝가리 개혁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강한 저항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반영하여 헝가리 보편 신앙고백서는 참 교회의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강조하였다. 특별히 참 교회를 정의하기를 선택을 받아, 부름을 받고, 중생하여, 믿으며, 의롭게 된 자들의 보이는 모임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참 교회와 거짓

36) RCET vol 2, "The Scottish Confession (1560)," 849. 번역은 김영재편, 『기독교 신앙고백』, 448-449.

37) RCET vol 2, "The Belgic Confession (1561)," 442. 번역은 김영재편, 『기독교 신앙고백』, 476.

교회의 분명한 구별을 요구한다. 참 교회의 표지는 다른 개혁파 신앙고백서와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과 오염되지 않은 성례를 시행하는 것을 언급한다. 그러나 권징을 말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대신에 구원의 원인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에 두며 사람의 공로에 두지 않은 것, 적 그리스도와 투쟁하는 것, 죄와 세상과 더러움과 싸우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선행을 행하는 것 등을 참 교회의 표지로 제시를 한다. 즉 헝가리 개혁교회 보편 신앙고백서는 객관적 지표인 말씀과 성례에 더하여, 성도의 생활의 주관적 측면을 참 교회의 지표로 제시를 하는 점에서 다른 개혁파 신앙고백서와 차이를 보인다. 더 나아가 선택받은 자들을 알 수 있는 표지란, 그들이 부름을 받고 보이는 교회의 회중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³⁸⁾ 이러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헝가리 개혁교회 보편 신앙고백서는 거짓 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린다.

거짓 교회는 적 그리스도, 귀신들의 교리, 사람들의 전통, 마귀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행한 일들을 따르는 무리이다.(마 13: 뎀전 4)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지 않게 보유하고 있으며 성례를 고유한 목적과 사용에 어긋나게 행한다. 또한 참 교회와 전쟁을 벌이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규례들을 공개적으로나 은밀하게나 정죄를 한다(계 7,12,13,18; 골 2; 사 29) 거짓 교회는 구원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에 두지 않으며, 율법과 자기 자신의 공로와 사람들이 고안한 것들에 둔다. 그것은 종파적 종교 집단, 예수회, 예표인 제사장 아론을 따른다. 그것은 마귀에게 제사를 드린다.

헝가리 개혁교회 보편 신앙고백서의 견해는 단호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가르치고 듣지 않으며, 성례를 예수님의 규례대로 시행하지 않으며, 복음의 이해가 바르지 않을뿐더러, 참 교회를 박해하는 교회는 거짓 교회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대상으로 구약의 그림자인 아론의 제사장직을 따르는 자들, 종파주의자들, 그리고 예수회를 지목한다.

그러나 불링거(Heinrich Bullinger)는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1566년)에서 좀 더 신중한 표현을 보이고 있다. 그는 참 교회의 표지를 기준으로 하여, 교회를 지나치게 좁게 제한을 하여 연약성으로 인하여 불안전함과 오류가 발견되는 사람들을 다 교회 밖에 있는 자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들이 참 교회의 표지에서 이탈한 '보이는 교회'에도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참된 교회의 징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좁게 보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즉 고의적으로 성례를 멸시하지 않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본의 아니게 성례에 참석하지 않거나 못하게 된 사람들, 비록 때로는 믿음에서 떨어질지라도 완전히 없어지거나 아주 믿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연약하기 때문에 불안전함과 잘못을 노출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로 간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는 세계에도 친구들을 두고 있었던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역류 생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다. 그곳에서 그들은 70년을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지 못하고 살았다. 자기의 주인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방황하거나 연약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백성에게 날마다 어떤 일이 있어 왔는지 우리는 안다. 그리고 사도 시대의 갈라디아와 고린도에 있던 교회들이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는 안다. 사도 바울은 그들 교회에서 심각한 범죄를 동반한 결점들을 발견하였으나 그럼에도 그는 그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라고 부른다(고전 1:2; 갈 1:2).³⁹⁾

38) RCET vol 2, "The Hungarian *Confessio Catholica* (1562)," 501-502.

39) RCET vol 1, "The Second Helvetic Confession (1566)," 849. 번역은 김영재편, 『기독교 신앙고백』, 558-559.

참 교회의 표지를 갖추지 못한 교회에 속해 있는 경우를 어떤 예에서 찾아 볼 수 있을까? 불링거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말한다. 그리고 갈라디아와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을 말한다.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경우도 연약하여 잘못을 노출한 교회의 한 모습으로 제시를 한다. 이것은 불링거가 참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섞여 있음을 말하기 위하여 예로 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면서도 불안전함과 오류 가운데 있는 보이는 교회에 속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할 때는 보이는 교회가 참 교회의 표지에서 벗어나 있겠지만, 그럴 경우라도 그러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참 교회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불안전함과 오류 가운데 있는 보이는 교회도 심지어는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처럼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로 일컬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렇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도들의 보편적인 믿음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너무나 흐려지고 전도되어서, 엘리야 시대와 다른 여러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왕상 19:10,14), 교회가 거의 다 멸절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가 더러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로운 판단에서 그것을 허용하신다. 한편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그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적지 않게 칠천여 명이나 보존하신다(왕하 19:18; 계 7:4,9). 사도는 주장한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딤후 2:19).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 가운데 누가 교회로 모여드는 사람인지 볼 수 없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눈에는 가리어 있으나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은밀한 것이므로 인간의 판단은 그것을 자주 놓치기 때문이다.⁴⁰⁾

불안전함과 오류가 어느 정도이면 비록 참 교회의 표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교회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불링거는 부정적으로 극단적인 견해를 경계한다. 엘리야의 시대와 다른 여러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믿음과 예배가 너무나 흐려지고 무너져버린 때에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칠천 명이나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보이는 교회가 비록 엘리야 시대처럼 타락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가 존재하며, 사람들은 이것을 바르게 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점을 주의시킨다.

그렇다면 참 교회의 표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교회를 가리켜 거짓 교회라고 단죄할 수 있을까? 불링거는 거짓 교회라는 말을 적어도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는 도나투스파를 정죄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자신만이 보편적 교회라는 주장과 로마 교황의 수위권을 거부한다.⁴¹⁾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도나투스파 또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거짓 교회로 진술하지는 않는다.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의 신중한 접근은 17세기 신앙고백서들 가운데서도 볼 수 있다. 17세기 몇몇 신앙고백서들은 참 교회와 거짓 교회의 구별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순수한 정도에 차이가 있는 교회를 말하는 내용상의 전환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 신앙고백서(1615년)는 69

40) RCET vol 1, “The Second Helvetic Confession (1566),” 849. 번역은 김영재편, 『기독교 신앙고백』, 559.

41)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아프리카의 한 구석에 국한하려고 한 도나투스파를 정죄한다. 우리는 또한 최근에 로마 교회만을 보편적이라고 속여 넘기는 로마의 성직자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 우리는 로마의 교황을 이 지상의 전투적인 교회의 보편적인 목자요, 지고의 머리로 만들고, 교회의 모든 권세와 주권적인 권능을, 그들이 말하는 대로, 총만하게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속 조사라고 하는 로마 성직자들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RCET vol 1, “The Second Helvetic Confession (1566),” 845, 846. 번역은 김영재편, 『기독교 신앙고백』, 554, 556.

항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성례가 시행되며, 열쇠의 권한이 사용이 되는 경우 그 순수함의 정도만큼, 그 교회들은 그만큼 순수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고백한다.⁴²⁾ 그런데 아일랜드 신앙고백서는 순수함이 부족한 교회를 곧 바로 거짓 교회로 단정하지 않는다.

비록 보이는 교회 안에는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과 함께 섞여 있으며, 때때로 악한 자들이 말씀과 성례의 사역에 있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역을 행할 때 자신들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며, 그리스도의 명령과 권위로 사역을 행하는 것인 만큼,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과 성례를 받는 일, 둘다에 있어서 그들의 사역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규례의 효과는 그들의 사악함 때문에 빼앗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사의 은혜도 또한 자신들에게 행하여진 성례를 믿음으로 올바르게 받는 자는 그러한 자들에게서는 줄어들지 않는다. 비록 그것들이 악한 자들에 의하여 실행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으로 인하여 효력을 갖는 것이다. … (70항)⁴³⁾

아일랜드 신앙고백서는 악한 자들이 말씀과 성례의 사역과 관련해 최고의 권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라도 그 교회를 가리켜 거짓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 보아야 한다. 아일랜드 신앙고백서는 그럴 경우라도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약속을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악인들이 사역을 행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말씀과 성례가 시행되고 있는 한, 그 교회는 여전히 참 교회이며 다만 순수함이 부족한 교회일 뿐이다.

17세기 중엽에 작성된 폴란드 개혁교회 신앙고백서는 아일랜드 신앙고백서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것은 참 교회의 표지에 따라 참 교회를 구별할 것을 말하면서도, 이 표지들의 순전함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여 참 교회이기를 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두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들(=참 교회들) 가운데 순수함과 완전함의 다양한 정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들이 부분적으로, 교리든지, 성례의 집행이든지, 예배의 다른 요소들이든지, 용례이든지, 교회 권징이든지, 순수하지 못한 것이 있으며, 얼마간의 오류들이 구원하는 신앙에 섞여 있거나 제멋대로 말썽을 일으키는 일이 교회의 권징에 혼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서도 그것이 최소한 구원하는 교리의 토대를 견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일을 실행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과의 연합과 다른 교회들과 나누는 형제의 사랑을 해체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들이 즉각적으로 참 교회이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14장 교회에 대하여, 6항)⁴⁴⁾

폴란드 개혁교회는 참 교회들 가운데 순수함과 완전함의 정도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음을 말한다. 하지만 그 순수함과 완전함의 편차가 여전히 참 교회 안에 있기 위해서는 구원의 교리를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다른 교회와의 연합을 지켜나가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참 교회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밝힌다.

그러나 어떤 교회가 구원하는 믿음의 토대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파괴한다면, 그리고 그 토대를 굳건히 붙들고 있는 다른 교회들과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끈을 고집스럽게 끊어버린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참 교회가 아니며 도리어 거짓 교회로 간주한다.(14장 교회에 대하여, 7항)⁴⁵⁾

42) *RCET* vol 4, “The Irish Articles (1615),” 102.

43) *Ibid.*

44) *RCET* vol 4, “The Colloquy of Thorn (1645),” 228-229.

45) *RCET* vol 4, “The Colloquy of Thorn (1645),” 229.

폴란드 개혁교회는 참 교회의 표지를 절대적으로 내세웠을 때, 많은 교회들이 참 교회의 범위에 들어가지 못할 것에 대한 이해를 품고 있는 한편, 참 교회의 표지를 무너뜨리는 것은 곧 거짓 교회로 넘어가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하여 참 교회와 거짓 교회 사이의 경계선으로서의 참 교회의 지표의 역할과 가치를 보존한다.

폴란드 개혁교회 보편 신앙고백서에서 살핀 순수한 정도의 차이를 가진 참 교회들이라는 내용은 한 해 뒤인 1646년에 발표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되고 있다.⁴⁶⁾

이 보편적인 교회는 때로는 더 가시적이고 때로는 덜 가시적이다.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의 지교회들은 그 교회에서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그 순수성의 정도를 드러낸다. 교회들이 드리는 공 예배 또한 그러하다.(4항)

하늘 아래 가장 순수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불순함과 오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어떤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사탄의 집단이라고 할 정도 타락하였다. 그러나 지상에는 늘 하나님을 그의 뜻대로 예배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5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참 교회를 세 가지 표지들을 경계로 하는 참 교회와 거짓 교회의 절대적 구별을 말하지 않는다. 각 교회에서 순수함의 정도가 다양하게 차이가 나는 까닭은 각 교회가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개혁파가 말하는 참 교회의 세 가지 표지 모두를 순수함의 정도 차이를 드러내는 기준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신앙고백서는 다만 말씀의 순수한 선포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⁴⁷⁾

순수함의 정도의 차이를 참 교회 안에서 바라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급기에 어느 교회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진술을 하기에 이른다. 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닌 것이다. 이 세상에는 불완전함이 사탄의 집단이라고 할 정도로 타락한 교회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거짓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거짓 교회란 순수함의 정도에 따른 구별이 아니라,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 이교도적이며 불신자의 모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순수함의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제시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탄의 집단이라 할 만큼 타락하였으나 여전히 교회인가? 아니면 이교도적이며 불신자들과 방불하여 기독교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인가?

4. 로마 가톨릭 교회는 참 교회인가? 거짓 교회인가?

46) RCET vol 4,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1646)," 264. 번역은 김영재편, 『기독교 신앙고백』, 645. 참 교회를 순수함의 정도의 차이 안에서 설명하는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의 흐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반영되고 있는 데에는 불링거의 『신학강론 50제』(*Sermonum Decades quinque*)가 16세기 이후 영국 목사들에게는 필독서로 요구되었다는 사실이 관련성을 갖을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John H. Leith, *Assembly at Westminster: Reformed Theology in the making* (Atlanta, GA: John Knox Press, 1973), 40.

47) 네덜란드 개혁교회(회복파)(GKN, hersteld)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25장 4항과 5항에서 참 교회 안에 있는 개 교회들이 순수성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를 갖으며, 어느 교회도 불순함과 오류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을 한다. 이것은 벨직 신앙고백서 29항에서 참된 교회를 세워야 할 교회의 책임과 이에 따른 표지들을 제시한 의도와 어긋나며, 성경의 가르침과도 어긋난다고 비판을 한다. *Bijlage 21: Onderzoeksrapport Westminster Standards (meerderheidsrapport)*, "De Westminster belijdenisgeschriften getoetst aan de Schrift en de drie formulieren van eenheid," 106-107. 영역을 위하여, http://www.calltoreform.com/Library/MaterialfromDGKH/WSmajorreportofBKK_DGKH.html

참 교회의 외곽을 세 가지 표지로 제한을 하고, 그것에 들어오지 않는 교회를 거짓 교회로 판단을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 쉽고 간결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문제들을 낳는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참 교회인가 아니면 거짓 교회인가를 물을 때, 대답이 간명하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비록 복음의 순수한 교리를 전파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16,17세기 개혁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초대 교회의 공의회에서 결의된 주요 신경을 다 받고 있으며,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을뿐더러, 합법적 세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참 교회의 표지들을 다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⁴⁸⁾ 최소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유대인과 다르며, 투르크 족들과도 다른 것이다. 유대인과 투르크 족들과 구별은 교회인가 아닌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보통은 일단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회임을 인정하고 난 후에는, 그러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참 교회인가 거짓 교회인가의 질문으로 나가게 된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다소 모호하다. 왜냐하면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만일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교회의 순수성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참 교회나 거짓 교회나 모두 교회인 것이 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교회 안에는 순수성의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며, 마지막 끝에는 사탄의 집단이라 할 정도로 타락한 교회가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라면 이 질문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순수함이 어느 정도나 되는 교회인가를 묻는 것이 된다.

그러나 만일 참 교회는 교회를 의미하고, 거짓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참 교회인가 아니면 거짓교회인가의 질문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기독교 교회인가 아니면 기독교가 아닌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 된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거짓 교회라고 판단하는 견해도 이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교도와는 다르다고 확인이 된 질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되고 만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참 교회인가의 질문에 대해 칼빈의 대답은 ‘참 교회이다’이기도 하고, 또 ‘참 교회가 아니다’이기도 하다.⁴⁹⁾ 칼빈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불경건하고 우상숭배를 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특권을 일부 잃어버렸던 유대인들의 형편과 동일하다고 말한다.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로보암 시대의 이스라엘에 못지않게 부패하고 타락해 있다고 판단한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그러면 어떠하냐? 유대인들이 반역을 하여 우상숭배를 한 날로부터 그들에게는 교회의 흔적(reliqua ecclesiae)이 남아 있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다. 대답은 쉽다. 먼저 타락에도 어느 정도가 있었다고 말한다. … 예로보암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하신 것을 거슬러 송아지를 주조하였고, 그것을 예배하도록 불법한 곳에 두었으니, 종교를 완전히 부패시켜 버렸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종교의 외적 형식에 부적절한 변화를 만들기 이전, 미신적인 풍습과 생각들로 오염이 되어갔다. 비록 그들이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에서 많은 왜곡된 의식들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율법의 가르침과 제사장직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던 의식들이 예루살렘에서는 여전하였으며,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견딜 만한 상태로 여전하였다. … 이제 그러면 교황주의자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그들의 악들을 줄이기 위하여, 종교의 상태가 그들로 인하여 예로보암 시대의 이스라엘 왕국이 그랬던 것과 같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할 수 있다면, 부인하도록 해보라.⁵⁰⁾

르호보암의 유다는 타락의 정도가 견딜만한 수준이며, 여전히 교회라고 인정되는 반면에, 예로보암 시대의 이스라엘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이 칼빈의 판단이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형편이 결코 예로보암 시대의 이스라엘보다 낫지 않다고 말한다. 칼빈의 판단에 이러한

48) Paul D. L. Avis, “The True Church’ in Reformation Theology,” 336.

49) 이것은 루터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기도 했고 또한 사탄의 모임이기도 했다. Ibid., 332.

50)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4.2.8. CO 2, 773.

점을 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다.

그렇지만 마치 타락한 유대인들 가운데 교회의 특권들 일부가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처럼, 교회의 흔적(vestigia ecclesiae)이 없어지지 않고 교황주의자들에게 남아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다는 점을 칼빈은 고려한다. 그 흔적들은 세례를 비롯한 다른 여러 것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적 그리스도가 교회를 파괴하되 기초까지 파괴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파괴된 후에도 여전히 건물의 절반쯤은 남아 있다.⁵¹⁾

그러면 칼빈은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흔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교회인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칼빈은 “교황주의자들에게 교회의 이름을 주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들 가운데 교회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답을 한다.⁵²⁾

요컨대 나는 그것들을 교회라고 부른다. 그 까닭은 주님께서 그 곳에 자신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을, 비록 비참하게도 흩어지고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보존하셨기 때문이며, 그리고 교회의 몇 가지 신경들(aliquot ecclesiae symbola)을, 마귀의 간계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결코 파괴될 수 없는 효력을 가진 신경들을 남겨 두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 이러한 논의를 할 때 고려해야만 하는 표지들(notae)이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나는 각 모임 하나 하나 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합법적인 교회 형태(legitima ecclesiae forma)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⁵³⁾

결론적으로 칼빈은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남겨두신 교회의 흔적 때문에 그것을 교회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 자체가 합법적인 교회 형태는 아니다. 칼빈은 교황주의를 교회의 합법적 형태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에는 교회라는 이름을 주기를 거부한다. 즉 교회가 아닌 거짓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보존하셨으며, 그 결과 세례와 신경들과 같은 것들을 남겨 두셨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를 ‘여전히’ 교회라고 부른다. 이 때 ‘여전히’ 교회라고 부른다고 했을 때, 그 교회는 거짓 교회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거짓 교회는 애초부터 교회가 아니므로, 어떤 파괴될 수 없는 세례와 신경들이 남아있을 이유가 처음부터 있지 않기 때문이다.

16, 17세기 거의 모든 신앙문서들은 칼빈의 견해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참 교회의 표지들을 기준으로 하여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고자 했을 때, 로마 가톨릭 교회를 참 교회로 인정할 수도 없고, 또한 거짓 교회로 둘 수도 없는 다소 난처한 결과가 초래 되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초대교회 신경들을 고백하고 세례가 유효하게 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패한 구약의 이스라엘을 여전히 교회로 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부패한 구약교회도 교회로서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개혁파 신앙문서들은 교황주의자들로부터 모든 마귀와 인간이 만든 사악한 교리들과 미사와 미신들을 제거해 버릴 것을 촉구하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를 드러내 놓고 거짓 교회로 못 박지는 않았다.⁵⁴⁾ 아마도 암묵적으로나마 로마 가톨릭

51)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4.2.11. CO 2, 775.

52) “Quum ergo ecclesiae titulum non simpliciter volumus concedere papists, non ideo ecclesias apud eos esse infitiamur.”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4.2.12. CO 2, 776.

53)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4.2.12. CO 2, 776.

54)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한 다소 어정쩡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시도가 16세기가 다 끝나는 시점에 영국의 국교도 신학자이었던 후커(Richard Hooker)와 17세기 초에 『교회론』을 쓴 필드(Richard Field)에게서 있었다. 이들은 모든 지상의 교회는 언약하고 오류가 있음을 말하며, 독단적인 로마 가톨릭 교회관과 재세례파적 분리주의자들의 교회관을 비판하였다. 이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는 물론 이 단분파까지도 아우를 정도로 폭 넓게 교회를 정의 하였다. 이들도 보이는 교회의 영역 안에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이들은 교회의 표지의 교리가 종교개혁 초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와 투쟁을 할 때

릭 교회를 거짓 교회로 말하는 대표적인 신앙문서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1560)와 벨직 신앙고백서(1561) 정도가 대표적일 것이다.

맺는 말

그러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참 교회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적절한 답을 준다.

하늘 아래 가장 순수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불순함과 오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어떤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사탄의 집단이라고 할 정도 타락하였다. 그러나 지상에는 늘 하나님을 그의 뜻대로 예배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25장 5항)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교회의 머리가 없다. 로마의 교황은 어떤 의미에서라도 교회의 머리일 수가 없다. 그는 적그리스도요 죄악의 사람이요, 저주의 아들, 곧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과 반대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25장 6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5항에 비추어 볼 때,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제도와 각종 교리와 예배의 부패와 미신 등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기 보다는 사탄의 집단이라 할 정도로 지극히 부패한 교회이다. 여기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참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만일 참 교회란 말씀, 성례, 그리고 권징의 세 가지 표지들을 순수하게 시행하는 교회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교회를 설명하는 표현이 아니라, 교회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을 말하는 정의를 제시하는 것이 된다. 그럴 경우 세 가지 표지들의 순수한 시행이 없다면 교회가 아닌 것, 곧 거짓 교회가 된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늘 아래” 불순함과 오류에서 자유로운 순수한 교회는 없다고 말함으로써, 세 가지 표지들을 순수하게 시행하지 않는 기관이라도 여전히 교회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즉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한 편으로 세 가지 표지들이 교회를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 그것이 교회의 필수적인 정의로 말하지는 않고 있는 셈이다. 교회는 세 가지 표지들을 특성으로 드러내지만, 그것들을 순수하게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여전히 교회라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훈이다. 그렇게 볼 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 가지 표지들을 모두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참 교회(vera ecclesia)는 아니다.⁵⁵⁾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다. 다만 지극히 불순한 교회

는 효과적이었지만, 보이는 교회란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참 교회와 거짓 교회의 이분법적인 흑백논리를 배격하였다. Paul D. L. Avis, 『종교개혁자들의 교회관』, 88-97. 이들의 사상은 공교회의 신앙문서로 발전되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책이 나오기 약 50년 뒤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들의 보이는 교회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55) 참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들어 이것을 순수하게 지키는 교회만을 참 교회라고 할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와 관련해 핫지(Charles Hodge)의 견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의도를 반영한다. 그는 만일 참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바르게 지키는 교회라야 참 교회라고 할 경우, 그러한 설명은 이상적이거나 완전한(ideal or perfect) 교회에나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세 가지 표지에 대한 이해는 실제로 존재하는 개별 교회가 참 교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일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것은 마치 완전한 신자가 아니면 신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을 한다. 만일 세 가지 표지를 순수하게 지키는 교회라야 참 교회라면, 동방교회, 영국성공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등은 물론 장로교회도 참 교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한다. 모두가 교리, 성례 그리고 권징에 있어서 결함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Charles Hodge, “Is The Church of Rome a Part of the Visible Church? - Essays in the Presbyterian by Theophilus on the question: “Is Baptism in the Church of Romve valid?”,” *Princeton Review* 1846, April, 18/2 April 1846, 323. 이

(*impurissima ecclesia*)인 것이다.

하지만 로마 교황이 적 그리스도라는 25장 6항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거짓 교회(*falsa ecclesia*)임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25장 6항에 비추어 볼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로마의 교황은 적 그리스도요 죄악의 사람이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임의로 대신하여 스스로 교회의 머리임을 자처한다는 점에서, 교황과 교황제도는 결코 교회라 불릴 수가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 자체가 아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한 편으로는 교회로 인정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교회일 수 없다고 말할 때 그것은 모순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17세기 후반에 개혁신학의 정점을 완성한 튜레틴(Francis Turretin, 1623-1687)은 이 질문과 관련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에 간접적인 도움을 준다. 튜레틴은 말하기를, 로마 가톨릭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 하나는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기독교 교회로서의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교황의 수위권이라는 교황제도를 받는 관점이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일정한 진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에, 후자와 관련해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기독교적이며 사도적이기는 커녕 적 그리스도적이며 배도적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전자와 관련해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고유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다른 것과 관련하여’(*improprie et secundum quid*) 기독교 교회라고 불릴 수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남아 있다는 점과 관련해서,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특별히 세례와 관련하여 남아 있는 외적 형태나 파편 조각들과 관련해서, 셋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신-인이신 그리스도의 중보, 그의 성육신,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른 교리들과 같은 기독교 진리로 인하여 이교도들이나 불신자들과 구별이 된다(*a coetibus Paganorum et infidelium distinguitur*)는 점과 관련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또한 튜레틴은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고유하게 또한 무조건적인 의미에서’(*proprie et simpliciter*),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는커녕(*nedum ut sit Unica et Catholica*), 참 교회(*veram Ecclesiam*)라고 불릴 수 없다고 단언한다. 튜레틴은 참 교회를 밝혀주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진리의 신앙이며, 그 진리의 신앙은 이단성이 없고, 예배에 미신과 우상의 불순한 요소가 없으며, 종속과 폭정으로부터 자유로 와야 하며,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확신과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가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튜레틴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참 교회라고 주장될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⁵⁶⁾ 이상의 튜레틴의 설명에 비추어 볼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5항과 6항을 통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하여 5항에서는 교회임을 말하면서, 6항에서는 교회가 아님을 말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다.

결론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필 때, 칼빈이 말한 바를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예로보암 시대의 이스라엘보다 나을 것이 없지만, 그 곳에 교회의 흔적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여전히 교회라고 불릴 이유가 있다. 이런 사실을 반영할 때, 이분법적인 구분을 지어 로마 가톨릭 교회를 참 교회나 거짓 교회 가운데 어느 하나로 부르기보다, 지극히 불순한 교회로 일컫는 것이 16, 17세기 개혁파 신앙고백서들의 의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오늘의 해석일 것으로 판단된다.

글의 전문은 다음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음.

http://www.reformed.org/misc/index.html?mainframe=/misc/hodge_catholic.html.

56) Francis Turretin, *Institutio Theologiae Elencticae*, Tom. III, 18. 14. 3-5. 영역은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vol. 3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1997), 121-122.

가시적 성도(Visible Saints)와 교회언약(Church Covenant): 회중교회의 두 기둥 - 존 오웬을 중심으로

이성호 박사(고려신학대학원, 역사신학 교수)

서론: 회중교회론에 대한 정의

이 글은 17세기 회중교회론자의 대표적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오웬을 통하여 그의 교회론을 살펴보고 오늘날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장로교회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이 작업은 회중교회가 장로교회보다 낫다든지 한국장로교회가 회중교회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장로교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는 필자는 장로교 정치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중교회론이 가르치는 것이 모두가 다 틀렸다고 보는 것은 올바른 신학의 자세가 아니다. 두 교회론이 완전히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본다. 이 글이 회중교회의 장점을 통하여 장로교회의 단점을 보완하는데 사용되기를 바란다.

회중교회론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회중교회파들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혁주의를 신봉하는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장로교 정치만이 개혁파 교회의 유일한 성경적 교회정치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보면 회중교회론은 개혁파 전통에서 이탈한 변종이 되고 개혁신학과 회중교회론은 서로 공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적어도 역사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 왜냐하면 회중교회파들과 장로교회파들이 본격적으로 생기게 된 17세기 영국에서 두 그룹 모두는 개혁파 신학에 매우 충실했기 때문이다. 즉 개혁파 신학을 따르면서도 어떤 이들은 회중교회 정치를, 어떤 이들은 장로교 정치를 고수하였다. 신학과 교회정치를 완전하게 분리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개혁파 안에서 한 교리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듯이 (예를 들면 예정론이나 성찬론에 대해서) 교회 정치에 있어서도 개혁파 청교도들은 완전한 일치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 언급하는 회중교회론자들은 고유명사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오늘날 일반적인 의미에서 독립교회를 추구하는 회중교회론자(congregationalists)들이 아니라 17세기 이후 영국과 미국에서 존재하였던 특정한 개혁파 그룹(Congregationalists)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영국에서 이들을 대표하는 신학자 중의 한 명이 존 오웬이었고 미국에서 그와 같은 역할은 한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즈였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회중교회주의자들은 절대 다수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심지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유니테리언주의자들로 바뀌었지만 적어도 초기에는 이들의 절대 다수가 개혁신학에 충실했다.

논의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회중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회에 대한 오해도 제거시킬 필요가 있다. 일반인들은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를 장로들이 다스리는 교회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장로가 있는 교회는 모두가 다 장로교회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회중교회와 마찬가지로 장로교회도 개혁파 신학 전통에 서 있는 교회이다. 그렇다면 아무리 장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혁신학을 따르지 않는 교회(예: 성결교회나 순복음교회)는 장로교회라고 할 수 없다. 장로의 유무에 의해서 장로교회를 정의하게 되면 가장 어려운 점이 회중교회와 장로교회를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회중교회도 장로가 다스리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회중교회도 신학적으로는 개혁파 전통을 따르고 장

로에 의한 정치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개체교회만 놓고 비교해 보았을 때 두 교회의 실질적인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장로(presbyterian)는 장로회(presbytery)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장로회는 개체교회인 경우에는 당회, 지역교회인 경우에는 노회, 전국교회인 경우에는 총회라고 불린다. 이 회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 위계적 관계가 존재한다. 이 교회 정치는 영국교회의 주교제에 반대하여 생겨난 제도로 주교제가 1인에 의한 교회 정치를 추구하였다면 장로교회는 회(會)에 의한 교회정치를 추구하였다. 회중교회는 더 나아가 어떠한 위계적 교회정치를 거부하고 개체교회만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개체교회보다 더 큰 교회적 권위를 거부하였다.

장로교회가 장로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교회가 아니듯이 회중교회 역시 회중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교회가 아니다. 회중교회가 장로교회보다 민주적인 특성을 더 많이 가진 점이 존재하지만 회중교회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회중교회 역시 회중이 아니라 장로들의 모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 어떤 이들은 회중교회를 독립적 장로교회(independent presbyterian), 장로교회를 의존적 장로교회(dependent presbyterian)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¹⁾ 이들이 회중교회라고 부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도들이 모인 모임인 개체교회가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회중교회를 반대했던 이들은 이들을 “독립파”(Independents)라고 불렀다. 여기서 독립이라는 의미는 영국교회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데 다수를 이루고 있었던 국교회주의자들에게 독립은 분리를 의미하였다. 이들은 영국교회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모든 교파들을 뭉뚱그려서 “독립파”라고 불렀다. 여기에는 침례교, 퀘이커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모두 포함되었다. 독립은 분리주의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회중교회파들은 독립파라는 용어를 거부하고 함께 모이는 자들이라는 회중(congreg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었다.²⁾ 이 용어를 통해 그들은 자신들이 분리주의자들이 아니라는 의미를 선명하게 증거할 수 있었다.

국가교회(national church): 회중교회의 역사적 배경

회중교회론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발생하게 된 17세기 영국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교회론의 대표주자인 존 오웬을 예를 들어 보자. 오웬은 영국에서 났으니 당연히 영국 사람이었고, 실제로 영국교회(Church of England)의 교인이었고 목회자였다.³⁾ 그는 노회에서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주교에 의해서 서

1) John Bastwick, *Independency not Gods ordinance: or A treatise concerning church-government, occasioned by the distractions of these times. [electronic resource] : Wherein is evidently proved, that the Presbyterian government dependent is Gods ordinance, and not the Presbyterian government independent*, (London, 1645), 7. Henry Burton, *Vindiciæ veritatis: truth vindicated against calumny. In a briefe answer to Dr. Bastwicks two late books, entituled, Independency not Gods ordinance, with the second part, styled the postscript, &c.* (London, 1645), 3.

2) Larzer Ziff, *John Cotton on the Churches of New England*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186-7.

품을 받아서 성직자가 되었다. 이것이 뭐가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⁴⁾ 이런 관습적 전통이 거룩한 교회를 타락시키는 주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그 당시 점차적으로 늘고 있었다. 한 세기 전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으로 인해 일부 국가들의 경우 교회가 많은 점에서 새롭게 개혁되었지만 국가교회(national church)라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도전받지 않았다. 즉, 교회와 국가는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교회의 회원과 국가의 회원은 거의 동일하였다. 단적인 예로 어떤 국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받고 회원이 되었다. 그 결과 그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국가의 시민이면서 교회의 회원이기도 하였다.

국가교회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교구(parish)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당시 국가교회는 행정구역에 따라 교구로 나뉘어 있었고, 한 교구에는 하나의 교회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어떤 교구에 속한 사람은 그 교구에 하나뿐인 교회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하여야 했다. 옆의 교구에 있는 교회가 아무리 자신이 속한 교회보다 좋다고 해도 그 교회로 이명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일반 신자는 자기가 속한 교구의 교회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신자들은 자기가 속한 교구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평생을 보내야 했다. 이것은 목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목사는 어디까지나 자기가 맡은 해당 교구의 목사였고 다른 교구에서 설교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었다. 이런 교구 시스템은 요한 웨슬리의 시대에 와서야 크게 해소될 수 있었다. 웨슬리가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외쳤을 때, 그 의미는 말씀의 사역자는 한 교구에 매이지 않으며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국가교회 개념은 루터파는 말할 것도 없고 개혁파 신학 안에서 큰 도전을 받지 않았다. 로마교회라는 거대한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참다운 교회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군대의 힘을 지휘할 수 있는 경건한 위정자들이었다. 이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은 모두가 경건한 위정자들을 복음으로 설득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심지어 루터보다 교회와 국가의 구분을 더 강조한 칼빈조차도 자신의 기독교 강요를 개신교를 박해하는 프랑스 왕에게 헌사하였다. 반면, 위정자들의 힘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오직 말씀에만 의존하려고 하였던 재세례파들은 교황뿐만이 아니라 세속군주에게도 엄청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개혁파 교회들은 재세례파와 달리 국가교회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세속 군주의 도움으로 자신들의 교회와 교리를 지킬 수는 있었지만, 일단 교회가 세속 군주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자 교회는 국가의 눈치를 크게 살필 수밖에 없었다. 세속 군주가 경건한 군주일 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들의 후계자들이 항상 경건하게 될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세속군주의 최우선 관심은 교회의 순수성 보다는 국가와 교회의 안정과 평화 및 번영이었다. 그들이 원한 교회는 단일한 교리와, 단일한 교회 정치와, 단일한 예배 형식 속에서 단일화된 교회였다. 한 국가에서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하나 이상의 종교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만약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국가는 분쟁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세속군주들은 생각하였다. 이 국가교회의 기본 방침을 문제 삼거나 도전하는 세력들은 이들은 세속 군주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다. 국가교회에 대한 반대는 단순

3) 오웬의 생애에 대한 가장 권위있는 연구서는 다음 저서를 참조하라. Peter Toon, *God's Statesman: The Life and Works of John Owen* (Exeter: The Paternoster Press, 1971).

4) “우리도 똑같지 않은가?”라고 반문할 수 있으나 꼭 그렇지는 않다. 한국 신자는 한국에 태어나면 한국교회에 속하지 않고, 한국의 특정 교회(장로교, 침례교, 장로교)에 속할 뿐이다. “한국교회”는 존재하는 어떤 실체로서의 한국교회가 아니라 한국에 위치하고 있는 어떤 교회라는 뜻이다.

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였다.

국가교회가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은 교회와 국가의 구분이 모호해짐으로 교회의 거룩성이 큰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국가교회의 틀 속에서는 교회 안에 신자와 불신자가 뒤섞여 있을 수밖에 없었고 교회는 신자들의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들이 뻘뻘스럽게 활보하는 인간들의 사교단체가 되어버렸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재세례파는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국가와 교회를 철저히 분리시키는 것뿐이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유아세례를 전적으로 거부하였다. 교회의 회원과 국가의 회원이 일치하는 한, 교회 안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개혁파 신학자들도 국가와 교회의 구분을 강조하였지만, 시민과 교인이 실제로 구분되지 않는 한 신학적인 구분은 재세례파들에게 별 의미가 없었다. 그 결과 재세례파들은 교회의 회원을 오직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구성하려고 하였다. 더 나아가 신앙을 제대로 고백을 하고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회원을 계속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에 많은 힘을 쏟았다. 이를 위해서 말씀의 선포나 성례보다는 권징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그 말씀에 따라 시행되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개혁가들의 가르침에 도전하면서, 재세례파들은 참된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응수하였다.

종교개혁가들도 재세례파와 마찬가지로 기존 교회가 개혁되기를 원하였지만, 그들의 주 관심은 교회의 구성원이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리가 개혁되는 것이었다. 교회가 당면한 급선무는 타락한 로마교회의 거짓 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에 따라 올바른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었다. 교회에서 꾸준히 주의 말씀을 올바로 신실하게 선포한다면, 비록 교회 안에 죄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거룩성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교회의 거룩성이 교회 회원의 자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과 그에 따른 성례의 시행을 통한 성령님의 사역에 있다고 보았다.

개혁파 신학이 신자들의 거룩함을 교회의 거룩함과 동일시하지는 않았지만 신자들의 거룩함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종교개혁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로마 카톨릭 교회보다 교리의 정통성은 물론이고 도덕적 우위성도 확보해야만 했다. 칼빈은 권징을 교회의 표지로 보지 않았을 뿐이지, 교회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았다(뼈의 근육이라고 봄). 종교개혁 당시 최고의 신학자라고 볼 수 있는 피터 마터 버미글리(Peter Martyr Vermigli)와 같은 이들은 칼빈과 달리 권징을 교회의 표지 중 하나라고 보았고, 이와 같은 생각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나 벨기에 신앙고백서에 반영되었다. 요약하면, 개혁파 신학에 있어서 권징에 대한 완벽한 합의는 없었고, 또 권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권징이 교회를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오늘날 개혁파 신학에서 권징은 말씀과 성례와 더불어 참 교회의 3대 표지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영국교회와 청교도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오웬이 속한 영국교회는 기본적으로 철저한 국가교회였다. 대륙과 달리 영국의 종교개혁은 교회 지도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선도한 것이 아니라, 좀 어처구니없게 들릴

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야망(정부인과 이혼하고 자신이 원하는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하는)을 이루기 위한 국왕 헨리 8세에 의해서 직접 추진되었다. 왕은 자신의 의도를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이혼을 인준하지 않는 로마교회와 관계를 완전히 끊고, 스스로 영국교회의 머리가 되었다. 영국교회는 그 기원에서부터 철저하게 국가교회의 성격을 띠 수밖에는 없었고 이것은 이후에 영국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되었다. 왕은 영국이라는 국가의 머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영국교회의 머리이기도 하였다.

영국 교회는 헨리의 어린 아들 에드워드 시대에 교리적으로 보다 철저한 개혁파 신학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그가 일찍 죽는 바람에 이 개혁운동은 카톨릭 신자였던 그의 후계자 메어리 여왕에 의해서 좌절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그녀 이후에 개신교 신자였던 엘리자베스가 장기간 통치하면서 영국은 완전한 개신교 국가가 되었다. 이 기간 동안 강력한 왕의 통치 하에 국가교회가 정립되었는데, 교리에 있어서는 39개조 신조, 교회정치에 있어서는 주교제, 예배에 있어서는 공동 기도서(Book of Common Prayer), 말씀선포에 있어서는 설교집(Book of Homilies)이 네 개의 기둥으로 굳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엘리자베스의 통치 결과 영국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여러 종교적 형식을 대단히 강조하였다. 이런 형식들은 반성경적인 로마교의 잔재를 완전히 제거하였으나 성경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것들은 여전히 받아들였다. 문제는 분명한 성경적 근거가 없는 (그러나 성경에 명시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형식들이 모든 교회의 회원들, 특히 목사들에게 강제되었고, 이런 형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교권적 탄압이 시행되었다. 이런 종교적 정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마지못해서 하는 형식주의가 교회에 만연하게 되었다. 청교도들은 이러한 종교적 형식주의를 거부하고 진정으로 생명력 있는 활력있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려고 하였다.

안타깝게도 청교도들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완전한 일치라 보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기존의 형식을 그대로 두고 성도들의 경건생활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만족하였다. 이들은 영국 교회 안에 남아서 개혁운동을 주도하였다.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개혁적인 사람들은 영국교회의 정치체제와 예배의식을 보다 성경적으로 개혁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심지어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던 이들은 영국교회를 거짓교회라고 정죄하면서 스스로를 영국교회로부터 분리시키면서 자신들만의 교회를 별도로 세우려고 하였다. 이들은 오늘날 분리주의자(Separatists)라고 불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들은 영국교회를 떠나지 않으면서 영국 교회의 틀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재건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이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이들이 회중교회주의파(Congregationalists)라고 불리는 청교도들이었다.

오웬과 교회재건

오웬의 아버지는 국가교회를 거부한 비국교도에 속한 목사였고, 이 비국교도 전통 속에서 자랐다. 그는 영국교회의 형식주의를 거부하고 영국교회를 초대교회의 모습에 따라 재건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영국교회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는 제대로 세웠으나 그 위에 건물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고 생각하였다. 오웬은 자신이 할 일은 바로 이미 놓인 굳건한 기초위에 튼튼한 건물을 짓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오웬에게 있어서, 영국교회는 로마교회로부터 해방을 했으나, 로마교회적 관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여전히 노예근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 교리적으로 새롭게 되었지만, 그 속에 있는 교인들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었다. 단지 로마교회라는 이름이 영국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오직, 고위 성직자들만이 로마교회로부터의 해방을 확실히 체험할 수 있었다. 물론, 교회 예배에서 로마교회의 미사는 사라졌고 일반 성도들은 모국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었지만, 회원들의 구성은 큰 차이가 없었다. 성도들의 삶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재세례파는 세속국가와 완전히 단절하고 유아세례를 폐지하여 참다운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로 구성된 거룩한 공동체를 구성하려고 하였다. 물론 이런 방법은 개혁신학에 굳건하게 서 있던 오웬으로서서는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웬은 그들이 지적하였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였다. 문제는 개혁신학, 특히 유아세례의 근거가 되는 언약신학을 끌어안고서 어떻게 바른 교회를 정립할 것인가였다.

오웬은 바로고 튼튼한 교회가 성경적 가르침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점에서 국가교회는 어떤 경우에서도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지 유아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진정한 신앙고백이 없는데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였다.

산 돌: 중생한 성도

신약 성경에 교회는 집에 비유되곤 하였다. 집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굳건한 기초가 있어야 하고 튼튼한 벽돌이 서로 굳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오웬은 이 성경적 비유를 교회 재건에 적용하였다.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초가 바로 놓아져야 하고, 튼튼한 교회의 구성원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이 회원들이 서로 단단하게 하나로 묶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교회의 기초는 이미 종교개혁을 통하여 확고하게 놓였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것은 튼튼한 돌과 돌 사이의 굳건한 연합이었다.

오웬은 교회가 부실한 이유 중의 하나는 교회를 이루는 회원들 중에 부실한 돌, 죽은 돌이 구석구석에 끼여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건물을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는 오직 제대로 된 돌만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영국 교회 안에는, 신실한 신자들도 많았지만 이름뿐인 신자들도 많았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교회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사실상 거의 자동적으로 회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비록 영국 교회가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올바르게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회원이 부실한 이상 제대로 된 튼튼한 교회가 될 수는 없다고 오웬은 보았다. 교회의 표지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굳건하게 서서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였다.

오웬은 교회 회원들을 오직 중생한 성도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⁵⁾ 실제로 오웬 자신이 이러한 중생의 체험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이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오웬은 중생과 세례를 동일시 여기는 로마교적인 개념을 거부하고 그 둘의 구분을 강조하였다. 세례는 표지이고 중생은 실체이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가 분명히 말씀하였듯이,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중생한 자가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고 오웬은 거듭해서 강조한다.⁶⁾

5) Owen, *The Branch of the Lord the Beauty of Zion*, VIII: 287.

중생한 성도만을 통해서 개체 교회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중생을 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이다. 물론 누가 중생하였는지 누가 중생하지 아니 하였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만 하면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회중교회주의자들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들은 비록 인간이 중생 그 자체는 판단할 수는 없으나 중생의 결과인 그 열매들은 볼 수 있으며, 교회의 치리기관은 그 열매들을 가지고 중생에 대해서 합당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은 신적인 판단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에 충분할 정도의 판단은 된다고 보았다.⁷⁾

중생의 열매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사랑의 판단(judgment of charity)이다. 이것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삶아가면서 사람의 행동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판단을 한다.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동냥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 사람이 정말 거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거지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니까 동냥을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까, 아니면 어차피 알 수 없으니까 동정심이 생기는 대로 동냥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까? 사랑의 판단은 어떤 사람의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그 행위를 반증하는 명백한 요소가 없다면 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좋게 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그 거지가 명품 옷을 입고 최신식 핸드폰을 들고 있다면 그것은 적선 행위에 어울릴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그렇지 않고 그 거지가 낡은 옷을 입고 맹인이며 거지생활에 반하는 명백한 다른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거지라고 (실제로는 부자일 수 있지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는 이 사랑의 판단을 중생한 성도를 판단하는 것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뿐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중생을 명백히 부정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를 중생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회중교회론자들은 생각하였다. 반면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세례만으로 (17세기 문맥에서 세례는 거의 유아세례를 의미한다) 혹은 신앙고백만으로 교회의 회원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회원의 자격을 이보다 더 높이는 것은 성경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중생한 신자들, 즉 가시적 성도들로만 교회의 회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오웬의 생각은 그의 비판자들에게 교회를 축소시킨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오웬의 말을 따르기 위해서는 교회 속에 있는 회원들 중 상당 수 정리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든 교회 안으로 많은 사람을 끌어 모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인데, 안에 있는 교인조차 밖으로 내 모는 것이 교회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오웬은 초대교회를 예로 들면서 강하게 반박하였다. 초대교회는 회원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철저한 교육을 시켰고, 이미 받아들인 회원에 대해서도 엄격한 권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는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신자들이 모이는가이다.

교회언약(church covenant): 성도 간의 굳건한 결속

6) Owen, *The True Nature of a Gospel Church*, XVI: 13.

7) Owen, *The True Nature of a Gospel Church*, XVI: 21.

제대로 된 돌이 단지 모여 있기만 해서 집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중생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벽돌이 시멘트를 통해서 서로 굳게 붙어있어야 튼튼한 건물이 되듯이, 교회도 산 돌인 중생한 신자들이 서로 굳게 연합되어 있어야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교회 회원들인 이 돌들 사이의 연합을 오웬은 교회언약(church covenant)라고 부른다.⁸⁾ 교회 언약은 교회의 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중생한 신자에게 회원 간의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는 문서이다. 보편적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으로 모든 회원들이 연결되어 있듯이, 지역교회도 언약을 통해서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결합의 특성은 자발성이다.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성립되는 것이다.⁹⁾ 만약 언약에 자발성이 빠진다면, 그 언약은 언약이 아니라 강요가 된다. 그렇게 될 경우 강제적 요소가 사라진다면 그 공동체의 결속력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기가 원해서 가입되지 않은 단체를 위하여 진정한 충성심이 생길 수 없다. 국가 교회가 허약한 이유는 성도들 간의 결합이 성도들의 자발적 헌신이 아니라 국가의 법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장로교회주의자들과는 달리 회중교회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종교의 관용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서 있었다.

이 교회언약의 도입으로 인하여 회중주의교회는, 성공회나 장로회같이 위에서부터(예를 들면 주교나 노회와 같은 권위있는 기관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즉 신자 회원들의 언약에 근거하여 세워진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세우는 것이다. 이전에는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아 신자가 된 무리들이 모이면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제는 그 반대로 세례 받은 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중생을 경험하게 되면 그 신자들끼리 모여서 목사의 도움 없이도 상호간의 언약을 통해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교회언약은 개체교회(congregation)를 최우선하게 된다. 엄밀한 의미에서 개체교회를 넘어서는 제도적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교회언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개체교회의 개념도 근본적으로 변하였다. 이 전에는 개체교회라고 하면 보편교회(universal church)와 구분되는 특정교회(particular church)라고 불렀다. 그 특정교회는 주교가 다스리는 일정한 교회들의 모임인 주교좌 교회(diocese)나 혹은 장로교의 경우 지역교회들의 모임인 노회를 지칭하였다. 따라서 지교회는 주교좌 교회나 노회의 한 부분일 뿐 온전한 의미에서 교회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교회 언약으로 이루어진 개체교회야말로 그 자체로 완전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더 이상의 권위가 있을 수 없는 독립된 교회였다.

오웬이 교회를 이렇게 이해한 이유는 개체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적으로 통치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¹⁰⁾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되심이 완전히 확보되기 위해서는 교회 위의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가 직접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세운 비성경적 제도인 주교나 노회가 끼여 들어서 통치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인위적으로 교회의 구역을 만들고, 그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구역에 위치한 교회에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교구제도(parish system)야말로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1000년

8) 싱클레어 퍼거슨이 지적하였듯이 오웬은 교회 언약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Cf. Sinclair Ferguson, *John Owen on the Christian Life* (Edinburgh and Carisle: The Banner of Trust and Trust, 1987), 155.

9) Owen, *A Country Essay for the Practice of Church Government There*, VIII: 51.

10) Owen, *Inquiry Concerning Evangelical Churches*, XV: 234.

이상 영국에서 유지된 이 제도는 교회언약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오웬은 초대교회의 예를 또 언급한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였다. 국가가 교구라는 구획을 정리하여 회원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성도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그 교회에 헌신함으로 회원이 되었다. 오웬은 이런 초대교회가 가진 자발성의 원리가 실천되어야 참된 교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웬은 국가에 의해서 종교가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무조건 교회 안에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망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마무리와 비평

영국 혁명이 급진적으로 진행되면서 1649년에 차알스 1세가 처형되었다. 영국 교회의 머리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그 교회를 지탱하던 주교들도 폐위되었기 때문에 국교회가 붕괴되었다. 젠트리 계급을 중심으로 한 신흥 세력들이 청교도들의 지원을 업고 정권을 잡았고 최종적으로 군대를 지휘하였던 올리버 크롬웰이 국정 최고 수반의 자리에 올랐다. 오웬은 크롬웰의 신망을 받아 종교에 관한 한 최고의 고위 공직자 자리에 올랐다. 그는 자신의 신념대로 영국의 종교 정책을 추진하였고, 최고의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의 학장을 맡아 미래의 주역들을 교육시켰다. 그는 최선을 다하여서 영국의 모든 교회들이 자신이 구상한 대로 교회가 재건되기를 기대하였다.

아마도 모든 청교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오랜 기간 동안 이 일을 추진하였으면 오늘날 영국교회는 많이 달라졌을지 모른다. 하지만, 크롬웰이 정권을 잡은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다지 성공적이지도 못했으며 무엇보다 그의 후계자가 될 아들은 국정을 이끌어가기에 무능하였다. 결국 대륙으로 피난하였던 차알스 2세가 1660년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왕으로 즉위하였고, 새 왕은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시 원위치 시켰다. 오웬이 추구했던 교회의 재건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나 오웬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국가적인 규모에서 교회를 중건하는 것은 실패하였지만 시골 작은 마을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한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 성경적/초대교회적 이상대로 세우려고 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용히 지나면서 여러 책들, 특히 방대한 히브리서를 주석하였는데, 이런 훌륭하고 탁월한 저술들은 이후 세대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고 교회의 개혁, 부흥, 중건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솟아나는 신학적 원천이 되었다.

오웬의 교회관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큰 시사점을 던진다. 그 당시 영국교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명목상의 교인들이 너무 많다.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너무 쉽다. 대부분의 교회의 경우 등록카드만 작성해도 교인이 된다. 솔직히 교회의 회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제 교회 생활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교인들을 끌어 모으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각 신자들이 실제로 산들이 되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또한 성도들 사이의 유대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그냥 교회당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뿐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오웬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웬의 고민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웬은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에 큰 과제를 던진다. “어떻게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개체교회를 말한다. 오웬의 교회론은 교파에 상관없이 적어도 교

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오웬의 말대로 아니 성경의 말씀대로 교회의 본질이 건물(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회를 개척하는 이들은 사람을 세우는 일에 모든 사역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어느 정도로 교회의 회원권을 강화시켜야 할 것인가, 또한 어느 정도 서로가 결속하도록 해야 할 것인가이다.

오웬은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성령으로 중생된 자들이어야 할 뿐 아니라 서로가 교회 언약으로 자발적으로 굳게 결속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교회를 개척하는 이들은 각 신자들을 먼저 중생한 자들, 즉 가시적 성도들을 만드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가시적 성도가 너무 기준이 높다면 적어도 신앙고백이 분명하고 확고한 “신자”를 육성하도록 해야 한다. 중생은 오직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목사는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전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일단 중생한 자들을 확보한 다음에는 성도들끼리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것에 힘써야 한다. 그것이 꼭 교회 언약이라는 방법이 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교회언약은 성경적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은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교회의 회원권은 지금보다는 더 그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장로교회의 경우 입교를 위한 교리 교육을 강화하고 이명증서만 확실하게 실천하더라도 성도들 사이의 결속력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회원을 가입할 때 예배 시간에 간단한 서약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회중교회주의자들은 기존의 교회론을 새롭게 해석하였다. 모든 정통 기독교인들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교회를 “성도의 교제”로 이해한다. 그러나 어떤 성도 어떤 교제에 대해서는 모든 교파가 달리 해석을 하고 있다. 회중교회주의자들은 성도를 중생의 경험을 고백할 수 있는 가시적 성도라고 보았다. 성도의 교제는 상호간의 철전한 연대인 교회 언약으로 해석하였다. 이런 교회론적인 이해 속에서 회중교회주의자들은 명목상의 신자들이 가득한 영국교회를 기초부터 다시 새우려고 하였다.

오웬이 새우려고 하였던 참 교회의 상은 그가 살았던 시대 속에서 잉태한 산물이다. 아무리 옳은 신학적 견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얼마든지 오용될 수 있다. 그는 영국의 모든 교회를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한 회중주의 교회로 만들려고 하였지만, 오웬 이후의 실제적인 역사를 볼 때,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중주의교회는 점차적으로 개혁주의를 완전히 떠났고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좌경화된 신학을 양산하는 중심이 되어 버렸다. 회중주의 교회론에 따르면 개체교회를 먼저 잘 세우면 국가의 전체 교회들이 바로 서게 된다. 이론은 그럴듯하고 전혀 실현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아 보이지만 교회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점에서 우리는 회중주의 교회론이 지닌 한계를 뚜렷하게 보게 된다. 그 한계는 장로교 교회론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